셰인 일병의 교육

로버트 브룩스

BLIZZARD ENTERTAINMENT

"여기 있는 젊은 남녀들은 모두 스스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아크튜러스 멩스크 황제가 말했다. "그리고 수개월의 고된 훈련과 희생을 통해, 고귀한 자치령 해병의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선봉대이며, 험한 우주에 당당히 맞서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강당 안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메아리쳤다. 동쪽 벽 높이 붙은 창문을 통해 한낮의 햇살이 밀려들어와, 자치령의 지도자와 그 앞에 5 열 종대로 길게 늘어선 신병들을 비추었다. 신병들은 말쑥하게 차려 입고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있었다.

곧 일병을 달게 될 열아홉 살 신병, 제프 셰인은 자기만의 전쟁에서 곧 패배할 지경이었다. 밝은 미소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입꼬리가 의지와 달리 자꾸 처지려고 했다.

'내 입대식에서 황제 폐하께서 연설하고 계시다니. 코랄의 영웅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현실 같지가 않았다. 자신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감히 열중쉬어 자세를 풀 수는 없었다. 그런 짓은 자치령의 해병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테니.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흉포한 두 외계 종족이 질투에 찬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멩스크가 말했다. "인류에게 버림받은 자들, 악당들, 반체제 인사들이 자치령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며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멩스크 황제는 갓 입대한 신병들의 대열을 찬찬히 살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신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이 거둔 승리를 축하합니다. 훈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정복하는 길에 이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황제의 시선이 셰인에게 머물렀다. 셰인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려, 힘없는 미소를 띄운 채로 멩스크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자기 시선을 정면 중앙에 고정해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기억해 냈다.

셰인은 재빨리 시선을 돌려 정면을 쳐다보았다. 멩스크가 빙그레 웃었다.

"이 젊은 영웅들이 우주가 제시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맞설 것임을, 그럴 준비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는 말했다. "어쩌면 몇 명은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셰인은 멩스크의 연단 바로 뒤에 높이 걸린 자치령의 강철 휘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휘장을 살피는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원통하게도 미소마저 어느새 지워져 있었다. 이 실수는 절대로 만회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셰인은 황제가 연설을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사람들도 조용해졌다.

시간이 흘러갔다. 침묵이 깊어졌다. 그런데도 멩스크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경질적인 미소가 셰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등 뒤에 돌린 손을 꽉 쥐었다. 고요가 지속되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귀가 먹먹해졌다.

문득 소름이 끼쳤다. 강당은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것처럼 들렸다. 완전히 빈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숨죽인 기침 소리도, 아이들이 들썩이는 소리도 없었다. 심지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미터 뒤에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아 있음을 알리는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

귀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다. 이마에 땀이 배어 나왔다. 두통이 심해지고 공포에 속이 뒤틀렸다.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연단을 훔쳐볼 엄두도 나지 않아, 그는 계속해서 휘장을 쳐다보았다.

셰인은 멩스크 황제와 모든 사람들, 신병들까지도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가 자치령의 해병답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또다시 하기를 기다리면서.

'잠깐만 보는 거야,' 셰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눈만 움직이면 돼. 잠깐이면 된다고. 황제 폐하께서 아까는 재미있어 하셨잖아.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황제의 연설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군중이 웃어 주기를 바랐다. 두통과,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압박감을 몰아낼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를 바랐다.

마침내 그는 눈을 돌려 뒤를 보았다. 눈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연단을 바라보았다.

멩스크가 없었다.

다른 신병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셰인은 충격에 빠져 뒤돌아섰다.

군중도 없었다. 휑한 강당에 그만 홀로 서 있었다.

혼란에 빠져 셰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다. 군중 속에서 한 명이 몰래 빠져나가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수백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모두는 아니었다. 한 형상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닿지 않는 강당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다. 강당 좌석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 보일 정도로 크고 육중한 형상이었다.

셰인은 그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해병이었다. 전투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자치령 해병이었다.

"이봐요!" 셰인은 자기 목소리에 담긴 극심한 공포에 스스로 놀랐다. "이봐요!"

반응이 없었다. 무장한 해병은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봐요, 당신 말입니다!" 셰인은 고함쳤다. 반응이 없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놈 짓이야.' 왜인지는 몰라도 셰인은 알 수 있었다. '저 해병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저 해병 탓이었다. 틀림없었다.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었다.

그날은 셰인에게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기본 훈련을 수료하는 날이었다. 자치령에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나날의 시작이었다. 머릿속에서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래야만 한다면 저 해병의 전투복을 이로 물어뜯어 벗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셰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대답이 없었다. 이건 너무하다.

셰인은 중앙 통로를 내달려 빈 열과 빈 좌석을 지나쳤다. 눈은 혼자인 해병에게 못박혀 있었다. '저 해병.'

불과 몇 초만에 그와의 거리가 좁혀졌고, 셰인은 이를 드러낸 채 울부짖으며 그 무장한 형상에게 달려들었다. 셰인의 팔이 그를 향해 뻗쳤다.

해병은 움직이지도, 동요하지도 않았다. 셰인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해병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분노의 화산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서 느껴지던 압박감이 고통이 되어 부풀어올랐다.

열아홉 제프 셰인을 바라보는 것은 전쟁에 시달리고 지친 제프 자신의 얼굴이었다. 감정 없는, 인간 같지 않은 눈빛을 한, 더 나이가 든 제프 셰인이었다.

가속이 붙은 셰인의 몸은 여전히 해병에게로, 자신에게로 움직였다. 쭉 뻗은 손가락이 해병의 금속 전투복을 스쳤다. 매우, 매우 차가웠다.

셰인은 눈을 깜박였다.

"여기 있는 젊은 남녀는 모두 스스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아크튜러스 멩스크 황제의 영상이 말했다. "그리고 수개월의 고된 훈련과 희생을 통해, 고귀한 자치령 해병의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선봉대이며, 험한 우주에 당당히 맞서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강당 안에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퍼져 나갔다. 동쪽 벽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뻗은 넓은 창문을 통해 한낮의 햇살이 밀려들어와, 단상 위에 투사된 자치령 지도자의 홀로그램 영상을 비추었다.

한낮의 밝은 빛 속에서, 실제 인체 크기의 홀로그램 영상은 일렁이며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투명한 영상을 통해서도 멩스크 황제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영상은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채 5 열 종대로 길게 늘어선 신병들 앞, 단상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곧 일병을 달게 될 열아홉 살 신병, 제프 셰인은 경악하며 뻣뻣이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살인. 셰인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 '너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 머릿속에서 무언가 속삭였다. 아니다. 꿈이다. 당연히 현실일 리가 없었다.

상상한 것이다. 아크튜러스 멩스크 황제가 자신의 기본 훈련 수료식에 직접 발걸음을 했다고 꿈을 꾼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꿈속에선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 꿈속에서 구경꾼들과 함께 자기 바지가 사라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었다.

'넌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낮잠을 자니?' 머릿속 목소리가 반박했다. '똑바로 선 채로?' 셰인은 움찔거렸다.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흉포한 두 외계 종족이 질투에 찬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멩스크가 말했다. 셰인은 이 연설이 미리 녹음되었으리라 생각했다. 자치령의 지도자가 기본 훈련 수료식 따위에 맞춰 자기 일정을 계획할 여유가 있겠는가?

다시 머리가 아팠다. 머릿속에서 압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의 정신이 숨통을 꽉 붙들고, 고통스럽게 공기를 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전에 느껴본 그 어느 두통보다도 심했고, 가실 기미가 전혀 없었다.

셰인은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 멩스크의 연설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몇 분이 지나고, 그는 황제가 입을 다물었음을 깨달았다. 또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셰인은 용기를 내어 연단을 흘끗 쳐다보았다. 홀로그램이 없었다.

'안 돼. 다시 이런 일이.' 셰인은 생각했다. '또 모두 사라진 거야. 난 알아...'

그는 바로 도망칠 태세로 허둥지둥 돌아섰다. 거의 천 명에 가까운 자치령 시민들의 얼굴이 셰인을 향했다.

그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리가 아팠다. 눈이 마구 이쪽저쪽을 향했다. 다른 신병들도 그를 주시하고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혼잡한 강당 안의 모든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혐오. 공포. 경악. 분노. 호기심. 그들은 셰인이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또다시. "뭘 쳐다보는 거야?" 세인은 조용히 물었다.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았다.

끔찍하고 어두운 충동이 머릿속에서 부풀어올랐다. 죽음의 환상이 거침없이 내달렸다. 분노가 깨끗하고, 멋지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정당하게 느껴졌다.

얼핏 보인 방 뒤쪽의 형상이 셰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군가 서 있었나?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엔 너무 작은 좌석에 앉아 있는 크고 육중한 형상이었다.

전투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자치령 해병이었다.

셰인은 자기도 모르게 통로를 내달렸다. 머릿속에서 고통과 분노가 끓어올랐고, 달려가는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침묵을 깨뜨렸다.

"... 죽여버릴 테다. 바싹 구워 버릴..."

분노에 사로잡혀 그는 관중의 표정이 그대로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셰인을 쫓고 있었다. 그가 폭발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전투복을 입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남자와 셰인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셰인은 바로 그에게 달려들고 싶었다. 전투복을 뜯어내고, 그 안의 사람을 없애 버리고 싶었다.

"우리가 도와주지." 해병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음성은 셰인의 목쉰 아우성 사이로 똑똑히 들려왔다.

셰인은 겨우 몇 발자국 앞에서 고꾸라지듯 멈춰섰다. 믿을 수 없다는 눈길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해병의 목소리는 셰인 자신의 목소리였다.

전투복을 입은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도와주지." 그는 다시 말했다.

셰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말 자체는 셰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뭘 돕는단 거지?' "넌 누구야?"

해병은 고개를 들어, 전투복에 달린 투명한 얼굴보호구 사이로 셰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전투에서 얻은 흉터가 여기저기 남아 있는 셰인 자신의 얼굴이, 셰인을 마주보고 있었다.

끔찍한 진실이 셰인의 의식 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대답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그 대답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마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그 대답을 몰아넣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만을. 모든 눈이 셰인을 향하고 있었다. 머릿속의 아픔이 심해졌다.

"이건 꿈이야." 셰인은 말했다. 고리타분한 박사 하나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래된 영상을 본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넌 내가 입밖에 내지 않는, 내 머릿속 쓰레기야. 내 잠재의식. 그렇지?"

해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린 네가 아니야." 그는 말했다. "아직은."

"우리?" 셰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의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누구야?"

해병은 손을 들어 동쪽 벽의 창문을 가리켰다. 셰인은 그쪽을 보았지만, 한낮의 햇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해병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랐다.

셰인은 동쪽 벽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내가 뭘 찾는 거지?"

"우리."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대답은 없었다. 셰인은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며 창문 밖을 살폈다.

모든 것이 펄펄 끓는 덩어리였다. 아니, 모든 것 이상이었다. 셰인은 평지, 혹은 나무 몇 그루가 드문드문 흩어진 초원을 보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몸부림치는 혼돈, 살아 있는 유기체 언덕과 골짜기가 거칠게 꿈틀거리는 풍경이었다.

셰인의 온몸이 축 늘어졌다. 몸이 비틀거렸다. 한 조각 의지가 겨우 그를 서 있게 했다.

네 발 달린 작은 생물이 이곳저곳을 누비며, 미끈거리는 큰 생명체 안팎에 길을 내고 있었다. 몇십 미터는 되어 보이는 육중하고 거대한 야수들이 느릿느릿 배회했다. 길게 뻗은 살덩이가 뼈 없는 팔처럼 흔들리고, 살아 있는 덩어리가 높게 솟아오른 곳에서는 시시각각 더 많은 생명체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지평선, 그 너머까지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셰인은 행성 전체에 생명체가 들끓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생명체가 새로운 집을 찾아 우주를 항해하고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아직도 그의 의식은 끔찍한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는 수십 억의 더 많은 생명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저그였다. 저그의 모든 것이었다. 군단 자체였다. 그들이 셰인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있었다. 보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누구야?' 셰인은 물었었다. 이것이 대답이었다. 그들은 군단이었다.

셰인은 뒤돌아섰다. 강당은 다시 텅 비고, 전투복을 입은 해병만 남아 있었다. 셰인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완벽한 고요를. 심지어 웃음기까지 띄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셰인은 말했다. "이건 꿈이라고."

"아니." 해병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그중 일부는 진짜라고 믿는다."

"어느 부분이? 군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내 얼굴을 한 해병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

셰인의 웃음기는 힘없는 미소로 번졌다.

"이 장소를 알아보겠나?" 해병은 빈 강당 앞쪽을 가리켰다.

"내가 수료한 곳이야." 셰인은 말했다.

"훈련에서 말이지." 다른 생명체가 말했다.

"그래."

"확신하나?"

순간, 셰인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 그는 거짓말을 했다. 방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는 여기 있었다. 그건 확실했다. 하지만 자랑스럽고 명예로웠던 그날의 따뜻한 기억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변질되고, 뒤틀린 것처럼.

다른 희미하고 어두운 기억이 머릿속에 퍼져나가면서 목구멍에서 쓴맛이 느껴졌다. 달콤한 연기 냄새가 났다.

"저 남자, 멩스크가," 해병이 낮게 말했다. "그날 너에게 말을 했나?"

"그가... 그래." 셰인은 대답했다. 그랬던가? 아크튜러스 멩스크 황제 본인 앞에서 자신이 입대 선서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연설은 그냥 홀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었거나, 미리 녹음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직접?"

"이봐," 셰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내 꿈속에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점점 빠르게 뛰는 심장에 맞춰 머릿속의 압력이 고동쳤다. 엄청난 고통이었다.

해병은 잠시 후에 대답했다. "우리는 이게 꿈이 아니라고 말했어."

'지긋지긋하다.' 셰인은 빈 의자 하나를 있는 힘껏 걷어차, 공중에 날려보냈다. 의자는 땅에 떨어지며 다른 의자 몇 줄을 무너뜨렸고, 시끄러운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다.

발길질 때문에 발이 아팠다. 머리와 같이 발가락도 욱신거렸다. 어떻게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육체적 고통 때문에 깨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셰인은 손가락으로 해병을 가리켰다. "내보내 줘." 셰인은 확신했다. 전투복을 입은 형체가 이 일의 근원이라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이 상황 중 하나라도 현실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현실이 아닌 거지. 그럼 이게 꿈이란 뜻이고. 내보내 줘."

"이건 꿈이 아니야." 다른, 나이 든 셰인이 말했다. "기억이야."

기나긴 시간 동안 침묵이 강당을 지배했다. "기억?"

"그래."

"변하는 기억?"

"그래."

"그게 어떻게 '기억'이야?"

"네가 기억하는 기억이지."

"그것 참 말 되네." 화가 난 상태인데도 셰인은 약간 불안함을 느꼈다. 점점 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감정 없는 눈을 가진 이 뒤틀린 제프 셰인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두통은 가라앉지 않았다. 머리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관자놀이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해병은 천천히 일어났다. 전투복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바닥이 삐걱거렸다. "넌 멩스크를 기억하지..." 그는 다시 낮게 그 이름을 말했다. "그가 너한테 말을 했다고. 아닌가?"

"그는 거기 없었어. 직접 온 건 아니었어." 셰인은 이를 갈며 말했다.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넌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었어." 질문이 아니었다. 셰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병은 몸을 쭉 펴고 서서 셰인을 내려다보았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할까?"

"좋아." 셰인은 으르렁거렸다.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고통에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실제가 아니었다고 치자. 그래서 뭐?"

"그 기억은 가짜야. 또 무엇이 가짜지?"

간단한 질문이었다. 이미 셰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깃털만큼의 무게를 더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셰인은 무언가 그의 정신을 살짝 찢는 것을 느꼈다. 마치 두 손이 두꺼운 캔버스를 힘껏 잡아당겨, 섬유 가장 약한 곳에 조그만 틈새를 내는 것과 같았다. 그는 몸을 떨었고, 현실도 그와 함께 전율하는 듯했다.

강당에 조그만 검은 점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깊은 광기의 나락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이었다. 그 창들이 셰인의 시야에서 춤을 추고, 서로 충돌하며 합쳐졌다. 몇 개는 입을 쩍 벌린 구멍으로 커졌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암흑이 그를 집어삼키리라. '또 무엇이 가짜지?' 만약 그 대답이 "전부"라면, 셰인은 자신이 광기에 빠져들 것임을 알았다. 그는 간절히 그 반대의 질문에 매달렸다. '무엇이 진짜지?'

강당. 강당은 진짜였다. 그건 확실했다. 그게 실제의 기반이었다. 셰인은 그 생각에 매달렸다.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은 멈췄다. 압박감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지만, 심해지지도 않았다. 구멍들은 떨리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우린 전에도 너희에게서 이걸 봤지." 무장한 셰인이 말했다. "여러 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저기에서... 돌아올 방법은 없으니까." 그는 큰 구멍 중 하나를 향해 손짓했다. 그

구멍은 사슬에 묶인 미친개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은 자라고 싶어했다. 셰인의 정신을 집어삼키고 싶어했다. 셰인의 전부를.

'돌아올 수 없다.' 셰인은 그 말을 믿었다. 저곳에는 무언가 "끝"이 있었다. 그는 속삭임으로 겨우 말했다. "어떻게 멈추지?"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지."

셰인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해. 도와달라고!' 압박감이 극으로 치달았다. 암흑은 기대감에 차 몸을 떨었다.

"어떻게?"

"거짓을 벗겨내 주겠어. 하지만 네가 우리를 받아들여야 해."

셰인의 눈이 커졌다. 우리를. 우리. 그들. 저그.

'군단.'

그들은 이미 셰인의 정신에 손을 뻗고 있었다. 저그가 여기에서, 그의 얼굴을 한 채 말을 걸고 있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철컥, 했다. 그는 앞에 선 해병과 창밖의 저그 무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이고, 같았다.

"개자식." 머릿속 고통이 커졌지만, 셰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실의 구멍이 커졌다. "내 머릿속에서 나가. 나가!" 그는 정신을 집중하며 아무 생각 없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구 저항했다. 무장한 해병은 즉시 사라졌다. 그것의 눈은 셰인의

시야에 불타오르는 한 쌍의 보라색 어둠을 남겼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저그 또한 사라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압박감은, 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제 강당 안에 정말로 셰인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다.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손톱이 두피에 박히고, 따뜻한 피가 그의 얼굴을 간질였다.

'난 죽을 거야.'

악을 쓰며 울부짖는 침묵이 그의 고막을 긁어댔다. 셰인은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목소리는 약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현실의 구멍 몇 개는 바닥에서 천장, 그 너머까지 뻗어서,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합쳐지고 커졌다. 그 궁극의 어둠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뒤덮으려고 했다.

셰인은 머릿속의 압력이 정신을 찢어발기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안이 더 공포스러웠다.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

그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견뎠다. 몇 초만 더 지나면 온전한 정신의 남은 조각들과 함께 강당이 흩어질 것이다. 그것이 셰인이 마지막으로 보는 무언가가 될 터였다.

머리가 핑핑 돌며 간절히 탈출구를 찾았다. '강당은 진짜야.' 그건 알고 있었다. 입대식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은 흐릿하고 실체가 없었다. 셰인은 강당에 정신을 집중했다. 오직 강당에만. 그것이 그를 지탱해 줄 것이다.

압박감이 자유롭게 풀려나, 맹렬히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셰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찾아낸 실제의 기반에만 매달렸다. 셰인 앞에서 광기가 입을 벌렸다.

흐름이 셰인의 정신에 깊은 골을 새겼다. 그는 혼돈이 껍질을 벗고, 날것의, 태초의 매끄러운 표면을 노출할 때까지 기다렸다.

입대식에 대한 셰인의 기억은 갈가리 찢겨 안개가 되고, 마침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멩스크 황제의 연설도 없어졌다. 신병들도 없어졌다.

압박감도 없어졌다. 거짓이 없어졌다.

강당은 남아 있었다.

셰인은 눈을 깜박였다.

"그리하여 자치령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바이다." 판사가 아래쪽을 굽어보며 말했다. "첫째, 계획적인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둘째, 피해자를 고문과 가학적인 행위로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셋째, 방화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사람들로 붐비는 강당 안에서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동쪽 벽 높이 붙은 창문을 통해 한낮의 햇살이 밀려들어와, 판사 앞에서 막 선고를 받은 범죄자와, 그를 부축해 똑바로 세우고 있는 법원 경찰들을 비추었다.

곧 사형수가 될 열아홉 제프 셰인은 판사의 계속되는 유죄 선고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납치 혐의, 유죄.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를 모독한 혐의, 유죄.

변호인이 셰인에게 그가 스무 개가 넘는 서로 다른 범죄로 고소되었다고 했을 때 셰인은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게 많이? 마약쟁이 하나가? "뭐 할당량이라도 채우려고 한 건가?" 그는 물었었다.

셰인은 왼쪽에서 팔꿈치를 붙잡고 계속 셰인의 어깨를 압박하는 법원 경찰을 노려보았다.

신체 절단 혐의, 유죄. 마약을 사용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 유죄.

"죽여버릴 테다." 셰인은 경찰에게 속삭였다. "바싹 구워버릴 거야. 맘에 드나?"

경찰은 흘끗 뒤돌아보고는 셰인의 어깨에 더욱 압력을 가했다. 별로 공포에 떠는 것 같지는 않았다. 셰인은 익숙한 그의 오랜 성깔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붉은 안개가 그의 시야를 뒤덮었다. 그는 돼지가 산 채로 타 죽을 때 어떻게 비명을 지를까 상상했다.

셰인은 탐색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들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뭘 쳐다보는 거야?!" 셰인은 고함쳤다. 그 보답으로 오른쪽에 있는 경찰이 손을 펼쳐 옆머리를 세게 때렸다. 셰인은 그에게 씩씩댔다.

"피고는 정숙하라." 판사가 말했다. "열여섯 번째, 극악무도한 범죄의 증거를 파괴할 목적으로 방화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겉으로 보이는 능글맞은 태도, 기나긴 유죄 선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 그 너머 셰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의 의식이 순수한 공포를 느끼며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정말 일어난 일일 리 없어.'

판사가 유죄 선고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동안, 아까의 그 의식 한 조각은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이것 또한 거짓이며 잘못된 기억이라고 치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실제의 기반이었다. 그가 매달리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거짓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단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재사회화. 자치령이 셰인의 죄를 그 자신에게서 숨기고, 강하고 긍정적인 기억으로 겹겹이 바꿔친 것이다. 심지어 재사회화의 개념, 단어 자체조차 의식 깊은 곳에 갇혀 있었다. 그의 정신이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그 단어를 끄집어내기 전까지.

거짓이 어떻게 자신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확고하고 진짜인 무엇으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었다. 살인에 대한 선고를 받는 대신, 그는 자치령의 최고 지도자 앞에 서서 해병이 되기를 맹세했다. 분노에 찬 대중의 경멸과 마주하는 대신, 그는 봉사를 맹세했고 갈채를 받았다. 그 아름다운 허구는 진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구축되었다.

셰인은 이 재판도 거짓이라고 어떻게든 믿고 싶었다. 그의 재판, 아니, 그의 선고라 해야 할 터였다. 재판은 열렸고, 끝났다. 그가 받은 선고는 실제의 기반다운 무게와 진실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바로 진짜였다.

거짓은 없어졌다. 벗겨졌다.

'저그에 의해 벗겨졌지.' 깨어 있는 의식 한 조각에서 경고음이 들렸다.

판사는 마침내 판결문 낭독을 끝냈다. 23 개의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였다. 판사는 셰인에게 그 악랄한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열아홉 살 청년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침을 뱉고, 법원 경찰이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턱에 금속 기구를 씌워 입을 열 수 없게 만들 때까지 고래고래 악담을 퍼부어댔다.

그 조치는 셰인의 화를 돋우기만 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이 법정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판사는 군중이 바라던 형을 선고했다. 사형.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법원 집행관이 정숙하라고 외쳤다. 경찰들이 형의 빠른 집행을 위해 사형수 제프 셰인을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항소는 허락되지 않을 터였다. 사형은 해 질 무렵 집행될 예정이었다.

셰인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깨어 있는 의식 한 조각이 기억을 멈춰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만.'

그들은 수송선에서 그를 끌어내렸다. 아무 특징 없는 건물 안으로 그를 데려갔다. 보안 승강기에 그를 태우고, 한참 동안이나 지하로 내려갔다.

'그만. 제발.'

그들은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는 셰인을 온통 하얀 방 안에 밀어 넣었다. 셰인의 저주와 위협과 비명, 그리고 곧 사형대로 걸어가리라는 사실에 점점 커져 가는 그의 공포를 무시한 채 몇 시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의 깨어 있는 의식 한 조각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치령에서 그를 써먹을 데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곧 군인 하나가 자신을 자치령의 휘장이 붙은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가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저 끔찍한, 끔찍한 튜브 안에 셰인을 밀어 넣을 것이다. 고통이 시작되고, 그의 기억은 바뀔 것이다.

그것이 셰인의 진정한 수료식이었다. 자치령 군대에 들어가는 진정한 입대식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다. 어떤 도움이든.

곧, 도움이 찾아왔다.

온통 하얀 방 안,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해병이 셰인 앞에 서서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조명이 이상했다. 해병의 눈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두 셰인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서로를 응시했다.

"우리가 도와주지." 제프 셰인의 얼굴을 한 해병이 말했다.

"넌 누구야?" 갈라지는 목소리로 셰인이 물었다.

"네가 될 수 있는 것."

셰인은 강당 창문 너머의 풍경을 떠올렸다. 끝없이 펼쳐진 저그를 떠올렸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처럼 되지?"

"요청해."

"싫어."

"우리가 도와주지." 해병이 반복했다.

"그런 식의 도움은 필요 없어." 셰인은 말했다.

"필요해. 네가 준 고통을, 너희 중 다른 이에게서도 봤지." 해병은 말했다. "여러 번. 특히 지도자들이 그걸 좋아하는 듯하더군."

셰인은 무력감을 느꼈다. 비인간적인 시각 앞에서 발가벗겨진 그의 범죄들은 고통이라 표현되었다.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 말은 셰인의 허를 찔렀다. "뭐?"

"우리는 받아들인다."

"나 같은 사람을 '원한다고'?" 충분히 거절할 만한 이유로 들렸다.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들이 그랬듯이."

셰인은 침을 뱉었다. 수갑을 찬 손이 헛되이 허공을 갈랐다. "자치령은 날 받아들이지 않았어. 날 바꿨지."

"그렇다."

셰인은 그 말에 담긴 두 의미를 알아챘다. '그렇다.' 자치령은 너를 바꿨다. '그렇다.' 자치령은 너를 받아들였다.

셰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재사회화 아래 깊숙한 곳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숨겨져 있었다. 저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느릿느릿 걸어가던 기형적인 해병이 생각났다. 총과 촉수로 무장하고, 인간성이라곤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노예가 된.

감염된.

새로운 공포가 그의 뱃속에 휘몰아쳤다. 셰인... 제프 셰인 일병은 그들을 직접 보았었다. 그들과 싸웠었다. 화염방사병이 수백 마리를 바싹 구워버리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았었다. 감염된 놈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저그였다. 자치령의 포문이 향할 목표물이었다. 재사회화는 그것 이외에 어떤 생각도 남겨두지 않았다.

셰인 일병은 기억도 못 할 만큼 많은 전투에서 감염자들을 처치했다. 셰인 일병은 이겼었다.

편을 바꿔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받아들인다." 해병이 반복했다.

"너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죽였지." 셰인 일병이 말했다.

"'네가' 죽였지." 해병이 말했다. 말 그대로였다. 셰인 일병은 그 괴물을 수없이 잡아 죽였었다.

"그들은 내가 보기 전부터 죽어 있었어."

"아니야."

"너흰 그들을... 너희로 바꿨어." 셰인이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들이 말했다.

"개자식들. 너흰..." 셰인은 말을 멈췄다. 자신이 앞서 뱉은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저들은 그들을 바꿨다.' "그들은 편을 바꾼 게 아니야.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사로잡아서 바꿔버린 거지." 뱃속이 뒤틀렸다.

"그들은 선택했다."

셰인은 해병의 말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드디어 연결점을 찾아낸 것이다.

"그럼 나도 사로잡았겠군." 셰인은 말했다. 목소리가 아주 약간 떨렸다.

셰인 일병의 얼굴을 한 저그 해병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셰인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포로가 되었나? 날 깨워줘. 보여달라고."

"안 돼."

'나는 사로잡혔다.' 셰인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가 본 감염된 인간은 변형되어 있었다. 인간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니고 있었다. 저그는 어떻게 해서인지 그의 정신을 수면 아래에, 그의 기억 속에 가둬 놓고, 아무도 모를 짓을 그의 몸에 저지르고 있었다.

셰인은 이미 그들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셰인은 그 생각에 매달렸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도망쳐야 했다. 저들이 그를 잠재우고 기억 속에 묻어 두었다면, 탈출이 불가능할지도 몰랐다. 일단 자신을 깨우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보여줘." 셰인은 말했다.

"안 돼."

"보여줘."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까진 안 돼."

"싫어." 셰인이 말했다.

해병은 잠깐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자 익숙한 압박감이 셰인의 머릿속에 돌아왔다. 하지만 두통의 희미한 전조 정도에 불과했다. 전에 느꼈던 순수한 고통과는 달랐다. 압박감이 요동치고 뒤틀리며, 감각 없는 손가락으로 그의 머릿속을 더듬었지만 붙잡을 곳을 찾지 못했다.

셰인은 미소 지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원히 버틸 수도 있었다. "저런. 이제 안 먹히네. 그렇지? 참 이상해. 너한테 날 해칠 수단이 이제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해병은 대답하지 않았고, 셰인은 크게 씩 웃었다. "케케묵은 재사회화 얘기가 빠지면 내 머리를 가지고 놀 수 없나 보지? 여기 날 붙잡아둘 수는 있어도, 다시 날 갈기갈기 찢을 수는 없나 봐. 그렇지?"

"우리가 도와주지." 저그 해병이 말했다.

"멍청한 자식. 이제 그 말은 안 통해. 이런 식으로 해병들을 꺾었나?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몰고 가서, 공황 상태에 빠지길 기다린 거야?" 셰인은 자신의 도플갱어를 노려보았다. "재사회화가 만든 것들을 뜯어내는 고통은 훌륭한 동기 부여가 되었겠지. 그리고 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우정의 손길을 내밀면서 말이야. '우리가 도와주지' 좋아하시네. 지옥으로나 꺼져 버려."

해병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도 셰인은 상관없었다.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었다. "내 뇌를 날리는 데 거의 성공했지. 날 죽일 뻔했지만, 난 스스로 널 뿌리치고 날 다잡았어." 빈정거림이 섞였다. "드문 일인가? 내가 좀 특별한가?"

드디어 해병이 대답했다. "아니. 다른 이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우리 협조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냥 납작하게 밟아 버리면 될 텐데? 그러면 너무 손상이 많이 가서인가? 그렇지? 내가 널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거야." 셰인은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우위에 선 거야.' "그거 알아? 난 여기선 협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넌 기회를 날렸고, 이제 날 잡을 수 없지. 죽여. 아니면 날 깨우든가.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어."

해병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참이 흘렀다. 그러고는 불타는 해병의 눈이 셰인의 눈을 마주했다.

"탈출구는 없다. 우리가 원했다면 억지로 시킬 수도 있었어."

"그럴 수 있다면, 그랬겠지." 셰인은 말했다.

"아직도 그럴 수 있어." 인간 같지 않은 눈이 셰인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셰인은 그 해병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외계의 차가운 목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다. 인간의 겉치레는 모두 증발했다. "하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들이 말했다. "원하는 대로 머물러도 좋아."

해병은 사라졌다. 온통 하얀 방 안에 셰인 홀로 남았다.

그는 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다. 저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치령 장교들이 들어와, 발길질을 하며 울부짖는 셰인을 재사회화 탱크로 끌고 갔다.

과학자들은 지루해 하며 일에 착수했다.

투명한 튜브 문이 셰인 위에서 닫히고, 마침내 고통이 시작되자 셰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장교들도 과학자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살인자, 그보다 더한 놈이었다. 그야말로 인간쓰레기였다.

머릿속에서 고통이 고동쳤다. 예상치 못한 기억들이 마음의 눈에 떠오르고, 마구 섞이며 똑같이 빠른 속도로 물러갔다.

셰인은 그걸 제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욕과 매질로 점철된 과거로 돌아갔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이 그의 기억을 조사하고 있었다. 기억의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가장 아픈 기억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을 다시 겪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기억을 바꾸었다.

셰인은 눈을 깜박였다.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시작했고, 시작에는 고통이 따랐다.

여덟 살 제프 셰인은 머리가 멍해진 채 코피를 쏟으며 땅에 자빠졌다.

그의 아버지가 아직도 주먹을 불끈 쥔 채, 잘못했다고 빌라며 소리지르고 있었다.
제프는 이미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실수로 망가뜨린 의자에 대해서였다. 고통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셰인 일병은 그 일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었다. 그 기억을 다시 체험하고 있었다.
생각이 널을 뛰었다. 혀가 두껍고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래턱 왼쪽에서 이가 몇 개 흔들렸다. 아버지의 숨결에서 독한 위스키 냄새가 강하게 풍겨 왔다. 어린 자신이 다시 잘못했다고 웅얼거리는 걸 들었고, 그 대답으로 날아온 따귀를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더 진심 어린 태도로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진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란 말이야." 아버지는 말했다.

'웃지 마.' 셰인 일병은 울부짖었다. 소년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멍해진 여덟 살 제프는 두려움도 없이 웃음을 터트렸다. "엄만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 의자 싫어하셨을 걸요." 소년은 낄낄거렸다.

아버지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기억이 잠깐 흐려졌다. 셰인 일병은 제프의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머릿속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소년이 마침내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공포는 저만치 물러가고, 대신 분노와 고통이 그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다. 이마에 땀이 배어 나왔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혹은 정신을 잃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제프는 침실 문가에 서서, 아버지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다. 주방에서 식칼을 손에 쥐거나, 혹은 옆이 크롬으로 장식된 아버지의 "코프룰루 스페셜" 연발 권총을 찾아내고 싶었다.

아버지가 트림을 했다. 알코올 냄새가 온 방안에 퍼졌다.

여덟 살 소년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부엌으로 걸어갔고, 거의 빈 독주 병이 탁자에 놓여 있음을 인식했다. 소년은 검은 호박색을 띤 액체에 대고 코를 킁킁거렸다. 그 액체에 대해 생각했다. 셰인 일병은 망연자실한 채 침묵을 지켰다.

결심을 한 제프는 다시 아버지의 침실로 돌아가, 병에 남은 액체를 잠든 남자의 가슴에 쏟아부었다.

'안 돼.' 셰인 일병은 다른 기억으로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뭐든 좋았다. 심지어 재사회화, 그가 받은 선고에 대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까지 했다. 그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저들은 그가 끔찍한 순간을 모조리 다시 겪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몸 위에 알코올이 뿌려지는 동안 콧소리를 내고 입술을 핥았지만, 깨지는 않았다. 제프는 우모자산 싸구려 시가 옆에서 아버지의 라이터를 발견하고 불을 붙였다. 춤추는 주황색 불꽃을 아버지의 몸 위에 들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어뜨렸다.

제프는 불길이 너무 천천히 번지는 데 놀랐다.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는 것에도 똑같이 놀랐다. 연기가 방을 채웠고, 제프는 섬유와 살이 불타는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깥으로 나와 불길이 집에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뒤늦게, 너무 늦게, 3 개월 된 여동생이 아직 아기방에서 잠자고 있다는 걸 기억해 냈다.

제프는 동생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앉아, 손가락 사이로 일렁이는 불길을 쳐다보기만 했다.

셰인은 눈을 깜빡였다. 재사회화 탱크 안으로 돌아와서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현실이 다시 한 번 그에게서 멀어졌다.

'제발 멈춰.'

그의 기억이 10 년 후로 뛰었다. 열여덟 살 제프 셰인이 공짜 마약을 미끼로 어린 소녀를 구슬려, 다 쓰러져 가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소녀는 원래 중독자였다. 설득은 어렵지 않았고, 그녀는 몇 분 후에 바로 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눈꺼풀 아래에서 약이 불러일으킨 꿈속을 마구 헤맸다. 셰인이 기다렸던 바였다.

셰인 일병은 그 일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었다. 기억을 다시 체험하고 있었다. 셰인의 기대가 그의 기대였다. 셰인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했다.

'그만.' 셰인 일병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눈을 돌리려 애썼다. 보지 않으려 애썼다. 마음속으로 도와달라고 외쳤다. 소용없었다. 열여덟 살 셰인이 눈을 깜박이지 않으면 그도 눈을 깜박일 수 없었다. 셰인이 몸을 돌리지 않으면 그도 그럴 수 없었다.

"우리가 도와주지." 셰인 일병은 목소리를 들었다.

셰인은 그녀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눈꺼풀을 하나 들어올리고 확장된 동공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셰인은 넋이 나갔다. 그리고 셰인은 불을 붙였다. 마침내 깨어난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오렌지색 불빛 속에서 창백한 흰색 원이 드러났다.

셰인은 퍼지는 불길 가까이 머물렀다. 귓가에 그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뒤틀리는 그녀의 몸뚱이 위에서 셰인의 눈이 춤을 췄다.

셰인 일병은 깨어나려고 애썼다.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애를 썼지만, 천장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저그가 그를 아래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우리가 도와주지." 목소리가 말했다.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자 셰인의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잡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향기를 갈망해 왔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에 비할 것은 없었다. 언제나 새로웠다. 살아 있는, 숨을 쉬는 생물이 자기 죄의 결과로 불에 타들어가는 냄새는.

그가 들이마시는 달콤한, 달콤한 향기를 셰인 일병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 냄새는 '정말' 달콤했다. 설탕이 녹는 냄새 같았다. 언제나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셰인 일병은 천장에 부딪혀 계속해서 튕겨져 나왔다.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가 도와주지." 목소리가 말했다.

비명은 잦아들었지만 약한 몸부림이 계속되었다. 다른 강한 냄새가 방안을 채웠다. 불길이 한층 더 강하게 넘실거렸고, 셰인은 미소 지었다. 기쁨과 만족이 셰인 일병의 마음을 침입했다. 그는 그런 감정들을 모두 밀어내려고 애썼다. 혐오하려고 애썼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셰인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짓을 사랑했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지." 목소리가 말했다.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해병이 점점 더 커지는 불길을 배경으로 열여덟 셰인 앞에 섰다. 셰인은 그 형체의 빛나는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깜박였다.

* * *

50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구조물 두 개가 아직 불타고 있었지만, 마지막 비명이 잦아든 지는 이미 오래였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군단이 테란 전초기지의 잔해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다. 두꺼운 점막이 거침없이 퍼져나가, 죽은 적의 몸뚱이를 집어삼키고 차지하려는 열망에 가득 차 이미 시신에 손길을 뻗치고 있었다.

둥둥 떠다니는 대군주의 그늘 아래에서, 군단의 일원이 무릎을 꿇었다. 그 생명체는 자치령 해병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강철 갑옷이 인간과 비슷한 그 뒤틀린 형상을 겨우 덮고 있었다. 촉수와 거대한 살덩이가 틈새로 빠져나와 있었다.

헬멧 아래에서 빛나는 눈 두 개가 밖을 엿보았다. 숨결은 규칙적이지만 무거웠다. 연기가 그 생명체를 휘감았다. 생명체는 킁킁거리며 공기를 들이마셨다. 냄새가 그리 달콤하진 않았다.

근처에서 저글링 한 마리가 연기 나는 자치령 망령의 잔해 위를 껑충껑충 달리다가 잽싸게 멈춰섰다. 네 발 달린 작은 생명체는 자기보다 큰 생명체를 올려다보았다.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얼굴 앞에서, 낫처럼 날카로운 자기 이빨을 행복하게 맞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두 발 달린 큰 생명체는 내려다보고는 만족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군단이 승리했다. 끝났다.

빛나는 두 눈이 깜박였다.